

기관 임원연봉 제한 '살찐 고양이 조레' 불발

고은실 의원 대표 발의... 상한선 최저임금 연봉의 6~7배 도의회 행자위, 심사보류 "도민공감대 등 검토 더 필요"

제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레'가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제주시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

고임금에 관한 조레안'은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 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절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레안은 임원 연봉액의 상

한선을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경우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조레 초안에서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됐지만, 집행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용됐다.

지난 28일 해당 조레안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

균)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유능한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지역 의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조금 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레'는 부산, 경기, 울산에 이어 최근 경남도의회가 통과시키는 등 전국적으로 조레 제정 확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文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대통령 부부 고인 곁 지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92·사진) 여사가 노환으로 29일 별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 여사 별세를 공식 발표했다. 고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고인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오후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세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뒤 행사 종료 직후 부산으로 내려가 임종을 지켰다.

강 여사는 올해 들어 건강히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모친의 건강이 악화하자 지난 26일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강 여사를 문병하고 당일날 청와대로 복귀하기도 했다.

함경남도 출신의 실학자인 강 여사는 1950년 12월 흉남 철수 당시 메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경남 거제로 내려와 피난민 수용소에서 문 대통령을 낳았다. 고인 유족으로는 문 대통령의 누나 재월(68)씨와 동생 재성(62)·재익(58)·재실(55)씨가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친부모 상(喪)을 당하기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씨는 1978년 작고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지역 '중앙병원',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장애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친화장비 등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공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장애친화장비란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체성분 측정기, 특수 휠체어·진료대, 이동식 전동리프트, 영상확대 비디오, 점자프린터 등을 일컫는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 검진을 받으면 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서귀포예술의전당 가족음악극

서귀포예술의전당은 11월 23일 가족음악극 '모차르트의 마법바이올린' 공연을 선보인다.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은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복합적 공연으로 가족단위로 관람하기 좋은 공연이다. 공연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대표호(760-3368)에서 예매 가능하며, 1층 1만원, 2층은 5000원이다. 36개월 이상 관람가. 문의 760-3365.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말라가는 콜라비 밭에 물주기 29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콜라비 재배농가에서 한 농민이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가는 밭에 물주기 작업을 하고있다.

청소년 "같은 값이면 육류"... 수산물 소비 빨간불

KMI, 청소년대상 조사결과 제주양식 궤도 수정 불가피

국내 청소년들이 수산물보다 육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래 세대를 겨냥한 수산물 소비시장이 밝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국민햇감'으로 불리는 양식광어가 내수 소비시장 둔화로 인한 가격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인위적인 물량조절에 나선 제주의 양식산업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올 8월 전국의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55.0%는 수산물을 좋아하며, 싫어하는 비중은 17.2%로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3배 이상 많았다.

학생들의 75.4%가 수산물의 건강·영양적 우수성과 섭취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수산물의 건강과 영양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육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육류보다 수산물이 더 건강한 식품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24.8%, '그렇지 않다'가 26.8%로 비슷했다.

반면 같은 가격이라면 육류보다 수산물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학교급식으로 육류보다 수산물이

제공될 때 기분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조사돼 육류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 외식할 때 육류보다 수산물을 주로 먹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9.4%였으며, '그렇다'는 8.6%에 불과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수산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 지역 소재 수산가공업체가 개발한 수산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 제공 등을 강조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한국당, 특별감찰관 구자현 변호사 추천

민주당·미래당도 추천해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구자현(51·사진) 제주시 갑 당협 위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위원장은 지난 9월 도당위원장 직을 내려놓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주시청 검사로 지낸 뒤 2011년부터 제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구 위원장은 2017년 10월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에 몸 담았고,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21일 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에 합의하고 각당에서 1인씩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의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입을 추진 중이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청와대와 여당이 협조하고 나올지 도 미지수다. 국회·부미현기자

취업률 90%... "60+교육센터서 인생 2막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제주에 설립된 '60+교육센터'가 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60+교육센터는 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 2017년 시작됐으며, 건물미화관리사와 바리스타, 인지개발교육지도사,

LH시니어사원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0명이 교육을 수료, 93.7%에 해당하는 22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도 10월까지 232명 중 220명이 구직에 성공, 98.6%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송은범기자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문재인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 읍면동 차치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니 관심 있는 도민께서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9. 11. 1(금) 16:00 ~ 18:00
□ 장소: 아스타호텔 (제주시 서사로 129(제주시 삼도1동 535-10))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 참석대상 도민 등 100여명

□ 주제: 주민참여를 통한 속의 민주주의 실현(마을자치 중심)

- ▶ 주제발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강원대학교 교수)
- ▶ 좌 장: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 ▶ 토론자: ·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
- 장성철 (바른미래당제주도당 위원장)
- 현길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김항식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박건도 (청년협동조합 이사장)
- 정태성 (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주제발표: 30분/토론자 토론: 1인 10~15분 이내/풀로어 토론자 토론: 1인당 3분 이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5:50~16:00	· 등 록
16:00~16:05	· 사회자 : 양 영 철 행동본부 사무총장 · 개회, 국민의례
16:05~16:15	· 개회사 : 행동본부 공동대표(김기성,김정수) · 축 사 : 도 행정부지사
16:15~16:35	· 주제발표 : 정정화(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주민참여를 통한 속의 민주주의 실현 (마을자치 중심)
16:35~17:45	· 토론회 - 좌 장 : 양 영 철(제주대학교 교수) - 토론자 : 6명 · 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 · 장 성 철 (바른미래당제주도당 위원장) · 현 길 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김 항 식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박 건 도 (청년협동조합 이사장) · 정 태 성 (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17:45~18:00	○ 질의 응답
18:00~19:00	○ 폐회 및 만찬



월남전참전 제55주년 기념 행사 안내

월남전참전 전우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잘 있거라 부산항아! 꼭 살아 돌아 온다고 하면서, 월남전에 파병된지도 어느덧 5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월남전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뜨거운 애국심으로 뭉친 우리 참전용사들을 위해 월남전참전 『제55주년 기념행사 및 나라사랑결의대회』를 겸한 만남의장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전우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2019. 11. 5 (화) 오전10:30
장소 한라체육관(제주시 종합경기장 내)

※ 기념품 및 오찬

연락처 ·도 지 부 ☎ 724-5066
·제 주 시 지 회 ☎ 722-1221
·서귀포시지회 ☎ 763-5066

※ 월남전참전 전우는 부부동반으로 참석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